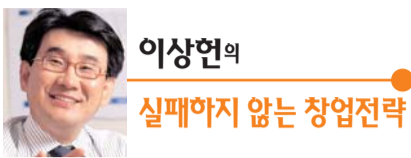


컬래버 악재는 컬래버로 승부



이상현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최근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 산업동향과 경영분석 등의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성장률 감소는 역대 최장기간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자영업 대출은 심각하게 늘어나는 중이다. 여러가지 원인과 악재가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자영업과 창업시장에서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즘 그 한가지 방법 중 하나가 자영업과 창업시장에서 부는 컬래버레이션을 포함한 점포 복합화 바람이다. 하나의 아이템에 하나를 더하거나 3~4개의 아이템을 협업한 경우다. 이는 앞서 말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지

속에 따른 소비 위축을 극복해 보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하나의 아이템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함께 판매해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켜 불황을 탈출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같은 복합화는 저비용으로 매출 다각화를 꾀하는 대표적인 창업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락을 더한 편의점 뿐만 아니라 AI 등 대외적인 변수를 대처하기 위해 피자나 스파게티, 떡볶이를 더한 치킨 전문점, 프리미엄 샌드위치나 젤라또 등을 더한 커피 전문점, 타코와 브리또를 더한 김밥 전문점, 이탈리아 커틀렛과 파스타를 특화시킨 돈가스 전문점 등이 대표적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코리안+베트남+타이 음식을 한곳에서 맛볼 수 있는 요리전문점까지 복합형 창업은 현재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창업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화(컬래버레이션) 창업에 성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에 다른 아

이템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을 결합하라. 둘째,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한 후 그것이 반영된 업종을 선택하라. 셋째,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을 업종을 선택하라. 넷째, 타겟 소비자들의 특징과 선호도 등을 분석한 후에 맞는 적절한 전략 구사하라. 다섯째,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수익률의 변동이 크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라.

복합형 창업 중 특히 소자본 창업의 경우에는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투자비를 최소화 하면서 고객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효과를 불러 오야 하므로 상품의 배열이나 인테리어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합형 창업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형 창업, 여기에 차별화된 콘셉트와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 된다면 성공창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현 소장 (컨설팅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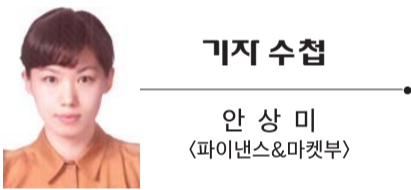


현대해상, 사회공헌 '소녀 달리기' 행사
현대해상은 지난 2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소녀, 달리기 - 달리기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8회째를 맞이한 이날 축제에는 초등학교 여학생 900여 명과 학부모 4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대해상은 달리기 코스를 완주한 학생 1명당 1만원의 기부금을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했다. /현대해상



BNK부산은행,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와 상호 협력
BNK부산은행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스킵십 마케팅에 나섰다. 부산은행은 6월부터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및 54개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BNK 부산은행 우수 중개업소' 선정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오른쪽 다섯번째부터) BNK부산은행 안감찬 여신운영그룹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광호 부산지부장, 뉴경동공인중개사사무소 홍준선 소장. /BNK부산은행

청산하지 못한 과거



기지 수집

안 상 미
(파이낸스&마켓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쇠신은 커녕 지난 해부터 이어진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와 경영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DGB대구은행 얘기다. 대구은행은 당초 4일 새로운 은행장 선임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했다.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조직 안정화를 바라는 행장 내정자의 요청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이사들의 뜻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을 연기하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해 새로운 주총 일자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 노조 역시 이사회 결정에 앞서 "이미 박인규 전 행장 비리로 도덕성에 흠결이 난 상황에서 김 내정자와 관련된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예정된 은행장 선임을 중단하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내정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미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은 대구은행이 경산시 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수사를 시작했다. 김 내정자는 당시 해당

지역 책임자였다. 임추위가 2명의 최종 후보군(쑤리스트)을 결정했을 때도 노조는 "은행장 후보 2명을 둘러싼 채용 비리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추위가 차기 경영자 리스크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결정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전 행장이 구속까지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반성은 물론 쇠신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행 내부와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모두 싸늘하다.

이제 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이 언제 열릴 지는 전적으로 검찰에 달렸다. 선임 연기의 이유를 의혹 해소라고 내세운 만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기 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기 힘들다. 결국 스스로 쇠신하지 못한 대가는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으로 돌아온 셈이다.

/smahn1@metroseoul.co.kr



SC제일은행, 홍콩·싱가포르 투자설명회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9일과 31일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홍콩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과 싱가포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에서 각각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하이디 토리비오(Heidi Toribio) 스탠다드차타드그룹 금융기업영업 대표가 5월31일 싱가포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에서 열린 '한국의 날(Korea Day)' 행사에서 현지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투자지원 전략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SC제일은행



롯데제과,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문품 전달
롯데제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장병과 훈령병에게 위문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위문품 전달식은 지난 1일 51사단(전승부대) 사령부에서 진행했다. 전달되는 제품은 빼빼로, 초코파이, 팜로드(초코블리, 쿠앤크 브라우닝) 등 약 1000박스, 약 5000천만원(소비자가 기준) 상당이다. /롯데제과



오비맥주, 찾아가는 물 환경교육 실시
오비맥주는 지난 3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환경재단과 함께 서울시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물 환경교육' 특별 공개강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수호천사 물 사랑 환경교실'은 오비맥주가 2017년부터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전국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 펼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물 지키기 수호천사' 캠페인의 일환이다. /오비맥주

- 인사**
- ◆외교부 △주방글라데시대사 허강일 △주아일랜드대사 여운기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장 조옥형
 - ◆기획재정부 △과장급 △운영지원과장 조용수
 - ◆금융위원회 △전보 △과장급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유재훈
 - ◆한국토지주택공사 △홍보실장 황정섭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스템융복합연구실장 장문석 △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장 이재용
 - ◆교보증권 (부부장) △IB부문 박종길 (본부장) △DCM본부 이이남 △프로젝트금융본부 최성만

- 〈부서장〉 △채권금융부 유승주 △기업금융1부장 상진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기획지원본부장 김종철 △교육본부장 최영우 △기획조정팀장 김선구 △역량개발교육팀장 신건호 △노사교육팀장 신언우 △청소년교육팀장 강지욱

- 부음**
- ▲김경태씨 별세. 김동선(IBK투자증권 PF금융2팀 부장)·동익(죽변고등학교 교사)·지연(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씨 부친상 = 3일,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특실), 발인 5일 오전 9시. 033-572-1141
 - ▲전용택(6·25참전유공자회중구지회장)씨 별세. 전성수(제이앤씨해운대표)·취수(한국수력원자력부사장)·필수(GS건설이란지사장)씨 부친상 = 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13시. 02-3410-6915
 - ▲김영숙씨 별세. 진기천(보통개발원 기획관리부문 부장)·기욱(글로벌시스템즈 기술기획팀장)씨 모친상, 최근덕(IMT호텔 이사)·박노철(마포구청 주무관)씨 빙모상 = 4일, 가평군 농협효문화센터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8시. 031-581-4442

국민연금공단 신임 연구원장에 이용하 박사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연구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임 연구원장에 이용하 현 국민연금연구원장 직무대리(사진)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1963년생인 이 신임 연구원장은 경북고, 고려대 농경제학 학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출신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지난해 11월부터 연금제도연구실장(연구원장 직무대리)으로 재직해 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과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64호